

한국 근대 산업유산의 실태 및 활용가능성 분석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을 중심으로 -

박재민* · 성종상** · 김진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I. 서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에 없이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왔던 '근대화'라는 이름의 매개체는 수많은 산업시설을 양산해 내었다. 이러한 산업시설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의 주도만이 아닌 도시의 형성과 확장, 문화와 정체성의 형성 등 모든 영역과 관계되어지며 도시 생태계를 형성해 왔다. 이처럼 산업시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근대화라는 시간의 한 켠을 담당해왔던 중요한 유산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화에 의한 생산물인 산업시설들은 2세기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의해 과거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더 이상 번영의 상징이 아닌 도시의 애틀단지로 전락해 버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서구 선진국과 일본 등은 산업유산에 관한 가치인식과 정의를 통하여 지역주민, 공공, 기업 등이 합일하여 역사적 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이를 도시재활성화를 위한 중심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산업유산에 관한 논의 및 가치에 관한 인식이 공유되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특수한 우리의 산업화 과정에 의한 산업유산에 관한 정의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인 산업유산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대표적으로 침략적 산업유산이 분포하고 있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을 중심으로 분포 및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자원의 특징적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II. 한국 근대 산업유산의 정의와 범위

서구의 산업유산(Industrial Heritage)에 관한 정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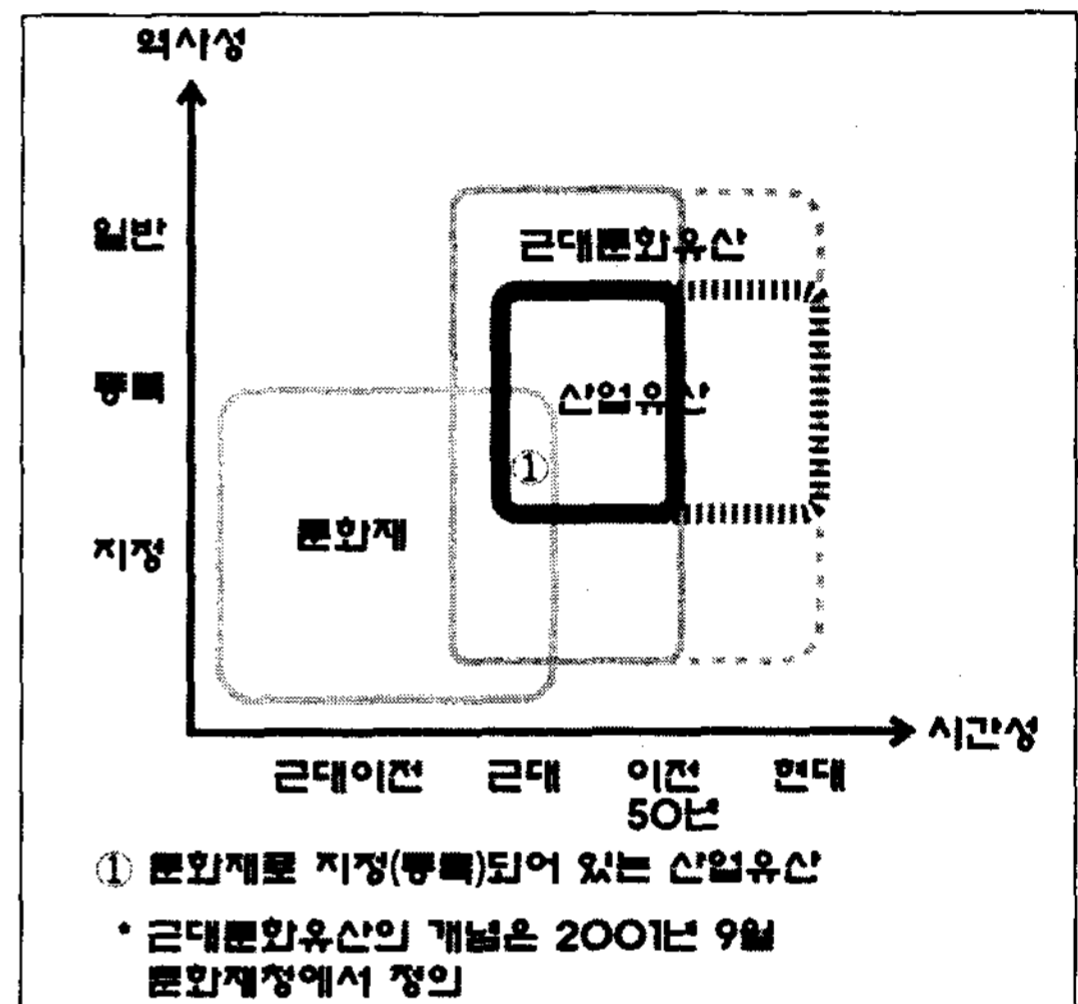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근대 산업유산의 정의
 강동진(2003.4)의 연구 수정

산업혁명을 전후로 근대 공업중심으로 하여 조성된 시대적 결과물들로서 산업·교통·도시·주택·공공 등의 모든 산업의 영역을 일컫는다. 그리고 확장된 의미로는 문화·경제활동까지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서양적 잣대로 산업유산을 정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근대 산업의 성장이 산업혁명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개화기 이후의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용적 범위는 서구의 산업유산과 그 분류체계를 공유할 수 있지만 산업유산의 시간적, 성격적 범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해방이후를 전후로 크게 분류되어질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라는 침탈과 수동적으로 형성된 침략적 산업유산과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형성되어온 자생적 산업유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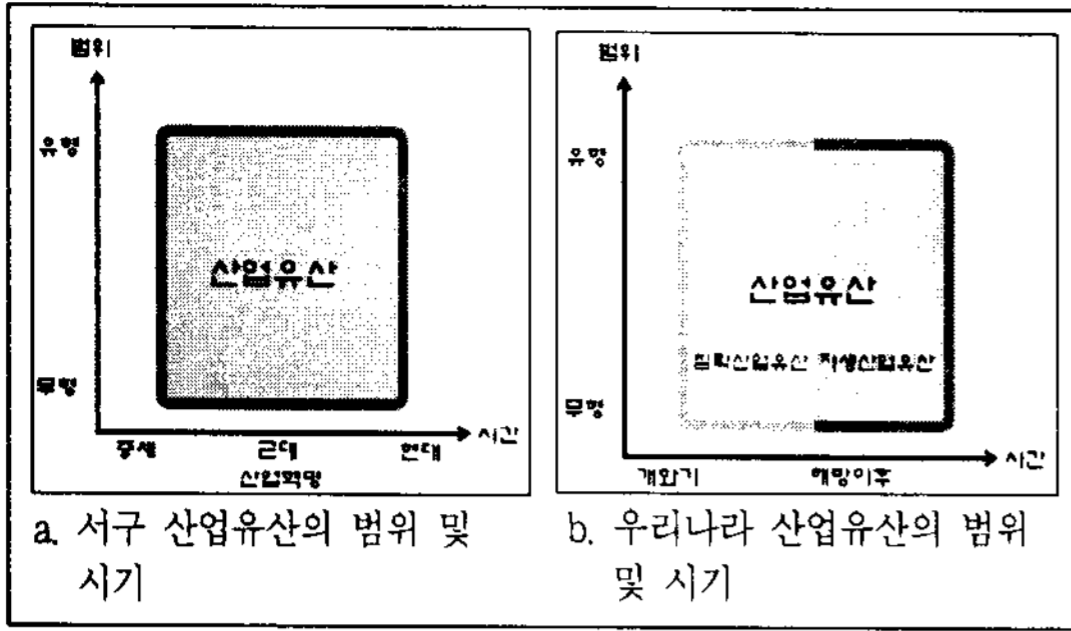


그림 2. 한국 근대 산업유산의 시간적·성격적 범위

III. 한국 근대 산업유산의 실태분석: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을 중심으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산업유산 중 해방이전의 침략적 산업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일대를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장항읍은 1930년대 갈대밭을 매립하여 만든 산업계획도시로서 일제 금 수탈과 미곡 침탈의 중심지였으며 이후 1960~70년대에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중심산업도시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에 의해 현재는 급격한 쇠락을 경험하고 있는 소도시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1차로 고 문헌을 통해 대상지의 과거 산업시설과 기타 시설들을 확인하였고, 2차로 4차례의 현장답사와 100여회의 인터뷰를 통해 그 대상물을 확인하였으며, 3차로 근대문화유산 법률의 기준을 토대로 산업유산적 가치가 있는 대상을 분류하였다.

IV. 주요 대상지별 특징 및 현황분석

본 실태분석을 통해 도시의 중심 산업시설의 유입은 단순한 산업시설 자체가 아닌 도시의 상징이며 도시의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산업시설의 건립은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건축물의 건립, 그리고 마을의 형성을 가져왔다. 또한 과거 장항제련소의 금 찌꺼기인 슬래그는 벽돌로 만들어짐으로서 특징적 건축재료로 활용됨으로서 장항만의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급격한 근대화에 의한 도시의 성장과 쇠퇴는 다양한 시간대의 도시경관을 도시 곳곳에 다양한 켠로 남겨 놓았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서천군 장항읍의 산업시설과 기타 현황조사 및 분류

| 분류 | 충청남도 조사(2004) | 고문헌 | 현장 조사 | 산업유산 가치를 가지는 대상 | |
|-------|---------------|-----|-------|-----------------|---|
| 합계 | 7 | 65 | 62 | 20 | |
| 산업 시설 | 제련 | 1 | 0 | 3 | 2 |
| | 철도 | 0 | 2 | 3 | 2 |
| | 양곡 | 0 | 4 | 5 | 2 |
| | 창고 | 1 | 6 | 5 | 3 |
| | 항만 | 0 | 3 | 5 | 2 |
| | 면업 | 0 | 2 | 2 | 1 |
| | 기타 | 0 | 1 | 1 | 0 |
| 건축물 | 주거 | 5 | 0 | 13 | 3 |
| | 숙박 | 0 | 6 | 1 | 1 |
| | 종교 | 1 | 5 | 3 | 1 |
| | 문화 | 0 | 4 | 2 | 1 |
| | 의료 | 0 | 3 | 1 | 0 |
| | 공공 | 0 | 6 | 3 | 0 |
| | 교육 | 0 | 3 | 2 | 1 |
| | 업무 | 0 | 12 | 2 | 0 |
| | 기타 | 0 | 8 | 3 | 0 |
| 기타 | 경관 | - | - | 3 | 1 |
| | 기타 | - | - | 5 | - |

V. 결론 및 활용 가능성

본 연구는 서양적 관점의 산업유산에 관한 정의를 한국적 상황에 맞는 산업유산에 관한 정의로 재정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침략적 산업유산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 산업계획도시인 서천군 장항읍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유산은 현재 도시의 성장과 주변 환경, 주민의 삶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산업유산의 특징은 그 활용에 있어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문화재의 보존이 단순한 보존이었다면 산업유산은 현재의 삶과 많은 부분 밀접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의 역사성을 간직한 도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문화와 그린의 대입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한 중심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유산의 활용은 각 도시와 대상지 별, 소유 관계, 공공, 주민, 기업 등의 다양한 이해

표 2.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산업시설과 건축물 및 기타 실태 현황

| 번호 | 분류 | 명칭 | 특징 | 건립연도 | 소유주 | 현용도 |
|--------|-------|-------------------------|--|-------------------|-------------|-----------------|
| | 산업시설 | | | | | |
| 1-1-1 | 제련 | 장항제련소 와 굴뚝 | 남한 최초의 건식제련소, 해방이후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 | 1936.6 | LG nikko | 공장 |
| 1-1-3 | 제련 | 제련소 사택 및 합숙소 | 과거 제련소를 위해 건립된 사택촌 | 1930 1967(재건축) | 기업 | 방치 |
| 1-2-1 | 철도 | 장항선 | 일제의 물자수송을 위해 건설 2008년 여객수송 중단예정 | 1930.1 | 공공 | 철도 |
| 1-3-1 | 검사소 |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 장항출장소 | 충청도, 경기 및 강원 일부 지역의 미곡의 침탈을 위해 미곡을 검사하던 검사소 및 창고 | 1930년대 | 농협 | 공부방(1) 방치(2) |
| 1-3-2 | 정미소 | 조선정미소 외 사무실 2동 | 과거 식량침탈의 중심 거점, 장항선을 타고 온 쌀은 이곳 에서 정미를 마치고 일본으로 수송되었다. | 1930년대 | 개인 | 방치(1) 주택 |
| 1-3-6 | 창고 | 미 창 | 철로주변에 형성된 미창 중 하나 현재 거의 방치 상태 (조선농회장항비료배합소로 추정) | 1930년대 | 농협 | 방치 |
| 1-3-8 | 창고 | 미 창 | 미곡 출항 전 저장하던 미곡 창고 모듈화 되어진 콘크리트기둥과 목조지붕 | 1930년대 | 개인 | 1동 방치, 공장임대 |
| 1-3-10 | 창고 | 미 창 | 조선정미소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미곡창고, 현 대한 통운 차고지 | 1930년대 | 기업 | 창고 |
| 1-4-1 | 항만 | 장항항 | 1930년 건립, 충남 유일의 국제항 | 1932 | 공공 | 항구 |
| 1-4-2 | 항만 | 장항 부잔교 | 1930년대 건립된 최초의 부잔교 | 1932 | 공공 | 부두 |
| 1-4-4 | 항만 | 항만노동 사무실 | 장항항의 항만노동자 사무실 | . | 공공 | 방치 |
| | 근대건축물 | | | | | |
| 2-1-1 | 주거 | 항만준설공사 사택촌 | 과거 장항지역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고급 거주지 | 1930년대 | 개인 | 주택 |
| 2-1-2 | 주거 | 떡전골목 주변주택 | 일제시대부터 만들어진 시장과 사창가 골목 건물의 전면부는 7~80년대, 건물 본체는 일본식 건물 | 1930년대 | 개인 | 시장/주택 |
| 2-2-1 | 숙박 | 한양여관 | 일본식의 여관 건물 | 1930년대 | 개인 | 방치 |
| 2-3-1 | 종교 | 장항교회 | 장항 최초의 교회, 일본식 목구조 | 1930년대 | 개인 | 방치 |
| 2-4-1 | 문화 | 장항극장 | 과거 서천군 유일의 극장 | 1930년대 | 개인 | 공장 |
| 1-4-5 | 조선 | 광양조선공업 | 충남 최초의 조선소 | 1965 | 기업 | 조선소 |
| 1-5-1 | 면업 | 남북면업 주식회사 장항조면공장 | 면 침탈을 위해 설립한 목화를 면으로 만들던 공장 목재소로 활용되어지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 | 1930년대 | 개인 | 방치 |
| 2-7-2 | 교육 | 농업전수학교 | 과거 농업전수를 위해 건립된 학교 | 1930년대 | 공공 | 방치 |
| | 기 타 | | | | | |
| 3-1-1 | 재료 | 슬래그벽돌 | 제련소에 생산 후 버려지는 슬래그를 활용한 벽돌 장항만의 독특한 건축재료, 현재도 도시곳곳에서 발견가능 | 1937~60년대 | - | - |
| 3-3-1 | 마을 | 황금정마을 | 금을 생산하던 장항제련소 주변에 만들어진 마을 | 1940년대 | - | - |
| 3-4-1 | 경관 | 일제시대 도시경관 | 일제시대 형성된 도시경관 | 1930~45년대 | - | - |
| 3-4-2 | 경관 | 해방이후 도시경관 | 해방 이후 형성된 해방촌 등의 도시경관 | 1945~60년대 | - | - |
| 3-4-3 | 경관 | 6~80년대 도시경관 | 6~80년대 형성된 경제성장기의 도시경관 | 1960~80년대 | - | - |

표 3. 한국 근대 산업유산의 활용 가능성 : 서천군 장항읍 실태분석 및 현상을 중심으로

| 분류 | 명칭 | 구상 | 활용 가능성 & 의미 | 소유주체 |
|--------|----------------------|---------------|---|----------|
| 산업유산 | 장항제련소 | 금박물관 | 기존 제련소 시설 활용 과거 장항의 대표적 산업 | LS니코/공공 |
| | 장항선과 역 | 산업예술 공원 | 도시의 새로운 시작점 중심 오픈스페이스 제공 예술가의 야외 작업장 | 공공 |
| | 미창 | 산업예술 공방/학교 | 빈 창고 활용 지역기반 기업과 연계한 산업예술문화의 도입 | 공공/기업 |
| 근대건축물 | 한양여관 등의 건축물 | 숙박시설 | 방치된 기존시설을 활용한 숙박시설 등 제공 | 개인 |
| 공터/유희지 | 건물붕괴에 의한 공터 및 유희지 | 쌈지공원/채마원 | 재식을 통한 임시적 기능 제공 물리적 도시환경 개선 공방 예술가의 개인 갤러리 | 기업/개인 |
| 재료 | 제련소 벽돌 | 상품/관광트레일 | 산업의 생산물성 | 공공/기업/개인 |
| 경관 | 다양한 시대별 도시경관/자연경관 | 관광트레일 | 도시의 다양한 시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는 트레일 구성 | 공공/기업/개인 |

관계에 관한 분석과 대화를 통해 다양한 해석과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는 산업유산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며 그 가치에 관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명확한 정의와 산업유산의 가치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 산업유산 분포와 특징에 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인용문헌

1. 강동진(2003)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전방법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38(2).
2. 권혁재(1999) 한국지리-우리국토 전체의 자연과 인문. 서울: 법문사.
3. 문화재청(2001)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안내. 서울: 문화재청.
4. 성종상(2005) 2005 문화정책논총: 산업시설 재생의 방향과 전략 연구. 서울.
5. 장항읍(1997) 장항의 역사와 문화. 충남.
6. 주식회사 LG금속(1997) 엘지금속 60년사. 서울: LG.
7. Judith Alfrey and Tim Putnam(1992) The industrial Heritage. Uk : London.